



기술과 활용 · 시장과 산업 “다차원 렌즈로 세계를 보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침체의 저점이 어디이며 언제쯤 회복세를 보일 것인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불황의 진원지가 IT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의 전조가 불길하다. 그동안 IT 분야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리딩업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신경제로서 우리를 뜨겁게 해왔다. 그런 IT 분야가 이제는 세계경제에 먹물을 뿜어내고 있다.

늘 그렇듯이 시계제로의 압당한 시점은 계몽기이다. 먹구름의 원인을 파헤치고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내는 일이 계몽기에 선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누가 계몽기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언론이다. IT 분야가 혼돈에 빠져있다면 당연히 IT 전문 언론이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전문 언론의 기능과 소임은 무엇인가? 전문성과 깨어 있는 정신이다. 기술과 시장, 산업과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호황기에는 침체의 징후를 읽어내고, 불황기에는 희망의 싹을 찾아내는 역할, 이것은 전문지에 주어진 사명이자, 전문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혜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IT 전문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T전문지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소임과 역할을 찾아보자.

IT전문지 20년 역사가 주는 교훈

국내 IT의 역사는 길게는 활용 측면에서 40여년, 산업 측면에서는 20여년에 이른다. 정부가 IT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기업들이 IT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한 20여년은 동시에 IT 전문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은 국가 차원에서 IT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 시기로, IT 전문지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부분 업무에 IT를 활용하고, 전문가라고 해봐야 전산 프로그래머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문지의 중요한 역할은 IT에 대한 소개였다. 정보사회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전망,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념, 국내 기업환경에 적합한 외국상품 등이 중심이었다.

1980년대 후반은 국내에서도 IT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시기였다. 국가 차원의 전산망 프로젝트가 막이 올랐고, 전전자교환기와 주전산기, 메모리 반도체 등 기술개발을 통해 IT 산업의 도약을 모색했다. IT 분야로 기업들의 골드러시가 일어났고 PC와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개가를 올렸다. 따라서 이때에는 IT 전문지도 기술과 시장,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기업의 사업방향과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을 IT 기술의 흐름과 시장의 추세를 통해 검증하고 비판하면서 국내 IT 산업의 비전을 모색하는 산업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한 시기이다.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전문지 시대

1980년대에는 국가 IT의 대계, 이른바 거대담론이란 걸 언론과 기자의 화두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과 시장, 정책과 사업 등의 렌즈로 IT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개와 비판, 계몽 등 언론 기능의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1990년대 중반은 IT 산업과 전문지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T가 기업활동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존용을 다투며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 신기술들이 국내에도 밀려들어왔다. 그 기술의 홍수 속에서 공급자와 사용자, 전문언론 모두가 기술, IT 자본의 논리(그것도 시시각각 변화하는)에 충추는 기술지상주의로 빠져들었다. 기업마다 미국 IT 공급사의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등의 경영혁신 방법론을 앞다퉈 도입하고 관련된 IT에 방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IT와 경영, 기술과 철학이 뒤엉킨 선진자본의 논리를 금과옥조처럼 받들며 투자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게다가 그게 실패라는 사실을 사용자 기업도 언론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시기 IT 언론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내 IT가 어디쯤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좌표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전문기자의 눈은 다차원 렌즈

1990년대 말은 이같은 기술지상주의의 참담한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IT전략을 모색한 시기이다. 사용자의 현실과 요구라는 데서 출발해 IT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용자의 현실에, 그리고 적용업무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가, 소유 IT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장단기 IT전략의 수립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사용자의 눈으로 IT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국내 IT 산업과 IT 전문지의 역사를 이같이 나누는 것은 도식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천 과정을 통해 21세기 IT 전문언론과 기자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무의미한 시기구분은 아닐 것이다.

먼저 이 기간동안 IT 전문지는 시대상황과 관련해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IT 전문지, 전문기자는 사실상 각 시대별로 충실하고자 했던 그 기능 모두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개념과 흐름을 읽어내는 눈, 기술과 상품을 시장의 동향 속에서 검증해내는 눈, 국가 산업의 구조를 견실하게 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그려내는 눈, 사용자의 효율적인 투자와 활용 극대화를 제시하는 눈, IT와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눈, IT 활용이 삶과 문화에 가져오는 변화를 읽어내는 눈 등. 이처럼 다차원의 렌즈로 무장해야만 전문지로서의 한 축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와 IT 전문지

물론 IT 전문지가 이같은 요소를 다 갖추고 언론활동을 한다고 해서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단숨에 와해시켜 버리는 다국적 투기자본이 판치고 있고, 내미 종속형의 허약한 경제구조인 우리로서야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이 제 기능을 다했다면 위기를 극복해내는 자생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왔을 것이다. IT 전문지는 이제 투사 정신으로 무장하고 제 역할을 찾아나서야 한다. **KICRA**